

아 · 림 · 다 · 운 살 · 사람

/category/bosal.asp

한 땀 한 땀에 멋 · 일 녹여요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4월 19일 수요일 (주간) 제 574 호

17

한복명장 김복연 씨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일류 한복점이 빼곡히 들 어선 골목. 화려한 옷감들로 눈이 부시는 한복골목은 평생 한복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의 보금자리다.

김복연 한복명장(제2002-17호)의 연구실도 한복 골목에 있다. 10평 남짓한 연구소는 문 입구에 명장의 연구실임을 알리는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을 뿐이다. 주인은 그 작은 간판으로 '진정한 멋은 화려 한 차장 속에서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 는 것일 게다.

침모의 바느질 어깨너머 배워

"마음에 부족함이 없으면 부족하지 않는 법이지 요. 누구에게 보일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디다. 그저 오랜 시간 한 길을 그렇게 왔습디다."

한복을 만드는 달인중의 달인 6명에게만 수여된 명장의 반열에 오른 김복연(72세)의 꾸밈없는 한마 디에 땀지 모를 깊이가 느껴진다.

1935년 성주의 양가집 둘째 딸로 고향 자란 김복연 명장은 손으로 만드는 것이 좋아 어린시절 침모(집)에 서 바느질일을 하도록 고용된 사람의 바느질을 항상 어깨 너머로 배웠고, 비단에 수를 놓으며 비단의 아 름다움을 느끼고 꾸밈 즐 알게 됐다. 단오절에는 창 포로 머리를 감았고, 방기를 휘날리며 그네를 탔다.

연지 곤지 찍고 시집가던 날을 기억하고 있는 김 명장에게는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삶과 멋이 고스란 히 배어있고, 평생 우리 옷을 만들며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그 멋과 일을 녹였다.

"한복엔 자연스런 멋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 면 옷고름도 자연스럽게 날리고, 빨간 땀기도 두루막 도 휘날리는 멋이 있는 것입니다. 입었을 때 저고리 소매는 편안한 주름이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양버들이 편안히 늘어지듯이 말입니다."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 알아야"

김 명장은 우리옷의 자연스러운 멋을 강조했다. 그 멋을 모른 채 소매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 달 라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또, 오래되어 빛이 바랜 무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을 모른 채 새것만 고집하는 현대인들의 조급함과 물질지향주의에 대해서도 걱정이 앞선다.

"새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랜 것이나 옛 것에 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함이 스며 있는데 요즘 사 람들은 그걸 몰라요."

오래 된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의 눈에서 사 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이 가늠된다. 또 자연스러운 것이야말로 참된 멋임을 아는 그의 마음에서 흐트러 집 없는 격조가 창출되는 것이리라.

옛 선조들의 깊은 멋과 감각을 익혀 온 김 명장에 게는 서양복식이나 적용되는 센티미터와 인치의 개



어릴때부터 두 손으로 원가를 만드는 일에 마음이 끌려 한복만들기를 일생의 업으로 삼아온 김복연 명장. '자연스러움'과 '옛것의 아름다움'을 작업의 화두로 삼고 있다.

한복은 수양버들같은 자연스러움이 최고

념이 일상화되어 한복 기능대회에서까지 적용되는 것이 어색하기만 하다. 그렇지만 현대의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 명장은 한복에 서양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배 우기 위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단국대학에서 늦 은 배움의 길을 걸었다. 평생 바느질로 살아왔지만 배울 때는 초심의 마음으로 훌쩍부터 배웠다. 하심의 도리를 알고 실천해 온 김 명장은 서양의 규칙을 우 리 옷에 적용하는 방법까지도 모두 익혔고, 공중복식 재현과 응용까지 두루 통하게 됐다. 그리고 명장제도 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고 바로 서류를 접수해 한번

에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명장이 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장인이었지만...

김 명장은 "어린시절 그곳이 큰 부모님에게서 받은 밑거름이었다"고 말한다. 특히 "불을 끄고 서랍에 들 어있는 중요한 서류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주변정리 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도 김 명장의 삶을 이끄는 지침이다.

그러나 부모님은 김 명장이 바느질 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부모님은 시집 간 딸이 바느질을 하지 못하 도록 짧게게를 차려줬을 정도였다. 하지만 김복연 명

장은 오직 두 손가락으로 원가를 만들고 싶다는 마 음에 바늘을 놓을 수 없었다.

고회를 넘긴 김 명장은 "마음을 살피고 바르게 뜻 을 세웠으면 감동하지 말고 한 길로 나아가라"고 충 고한다. 인생은 좋지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길로 나아가면 비람 과 비가 그치고 해가 난다는 것이다.

뚝 세우면 갈등 말고 한길로...

한때 남편이 운영하던 철물공장을 실패하면서 김 치조차 담가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김 명장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즐겁게 살았 다"며 웃음을 머금었다. 그 웃음은 고난을 이겨낸 사 람만이 전해줄 수 있는 생생한 법문이다.

"세상 모든 일은 기본에 충실할 때 발전할 할 수 있 다"는 김 명장은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찾는 학생들

에게 기본적인 몸과 마음가짐 기본 기술의 습득을 강조한다. 종이 한 조각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몸가 짐과 마음가짐은 한복을 소중히 여기는 기본자세며, 흠집을 통해 손 감각을 키우는 조각보자기 만들기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술로 여긴다.

상설한복전시장 마련이 꿈

열일곱 나이에 수놓은 무궁화며, 국화꽃 문양 베개 모서리를 소중히 펼쳐 보이는 김 명장의 얼굴에는 세월의 멋과 맛, 정성의 소중함에 대한 환희심이 가 득 피어올랐다. 작은 비단조각을 통해 우리민족의 멋 과 일을 말하고 삶의 활력을 이야기하는 김 명장의 목소리엔 수행자의 거침없는 기상이 깃들어 있다.

불국사와 석가탑 문양을 본떠 창작한 십자수 베개 피와 시집 울 때 친정어머니가 해준 비단이불조각을 펼쳐 보이는 김 명장의 얼굴에서 '오래된 아름다움' 이 일렁였다. 그 아름다움을 읽는 사람은 더불어 아 름다워지고 행복해질 것 같다.

김 명장은 비단이불조각의 꽃문양으로는 언젠가 수를 놓아 멋진 한복을 만들어 우리옷의 아름다움 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할머니에게서 받은 방한모는 제대로 복원해 우리조상의 솜씨를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참이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기술을 전하고, 우리옷의 아름다움을 알릴 상설한복전시장도 마련 하고 싶은 김 명장.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확인시켜 주듯 김 명장의 손은 어느새 바늘과 실, 옷 감들을 때만지고 있다.

대구/글=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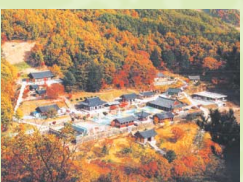
오래전부터 간직해 온 꽃문양 수와 비단들을 펼쳐 보이며 열과 멋을 이야기하는 김 명장.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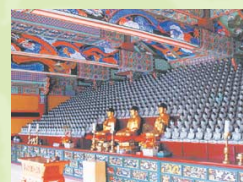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동불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둘러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둘러서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제자,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건동되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둘러서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용문사 소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IC → 중부내륙 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인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행차량 주차 가능